

월령체 가사 〈사시경계가〉의 구조와 형식적 특징 연구

이상숙*

〈차 례〉

1. 서론
2. 작품 구조와 형식적 특징
3. 〈사시경계가〉의 가사 문학사적 의미
4. 결론

〈국문초록〉

이 논문은 월령체 가사 작품인 〈사시경계가〉의 내용적 특징과 가사 문학적 의미를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하였다. 〈사시경계가〉는 월령체 가사 작품으로, 사계절을 노래하고 일 년 중 어느 달의 세시풍속을 노래하기도 하는 등 기존의 작품 분류 항목에 모두 포함되는 입체적인 내용의 작품이다.

〈사시경계가〉는 총 96행으로 44조가 기본을 이루며, 일 년의 사계절을 모두 노래하되 봄부터 시작하는 기존 작품들과 달리 겨울(대한)부터 시작해 봄, 여름, 가을 다시 겨울로 끝나는 순환적 질서로 구성되어 있다. 내용은 총 12단락으로 나뉘며, 1-4단락은 봄, 5-7단락은 여름, 8-10단락은 가을, 11-12단락은 겨울로 짜여있다.

작품은 계절의 아름다움을 묘사하고 세시풍속을 노래하며 그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계절의 아름다움을 묘사할 때 봄과 여름의 광경은 미시적 관점에서 거시적 관점으로, 다시 미시적 관점으로 변화하는 다채로운 표현 방식을 보여준다. 특히, 화자는 7월 칠석, 8월 보름 등 세시풍속이 그려지는 단락(6-10단락)에서 일상적인 즐거움을 보내는 이들과 혼자 된 이들의 모습을 대조하여 반복적으로 제시한다. 마지막 단락에서 따뜻한 방 안에 모여 흥겨운 양산도 민요를 부르는 모습을 보여주며 현재의 삶에 집중하여 즐겁게 살아보자는 주제를 완성한다. 이러한 조직적인 내용 구성과 반복적인 주제 표현 기법을 통해 삶과 죽음의 애환 속에서도 현재

* 경북대학교 기초교육센터 강사

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강조한다.

〈사시경계가〉의 작자와 창작연도는 자료 부족으로 추정하기 어려우나 작품 내용과 〈양산도〉의 유행 시기를 바탕으로 영천 지역의 전통을 중요시하는 여성이 19세기 말 혹은 20세기 초에 작품을 창작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사시경계가〉의 문학사적 의미를 첫째,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온 사시가 계열의 가사 문학 전통을 후대에 계승하고 있으며, 둘째, 19세기 말 20세기 초 변화하는 문화적 양상(민요, 잡가 등 구비 문학 및 대중적 요소)을 수용하여 내용적 확장을 이루었다고 보았다.

□ 사시경계가, 월령체 가사, 사시가 계열 가사, 세시풍속, 절일, 영천

1. 서론

월령체 가사는 월별로 내용이 구성된 가사 작품을 말한다. 월령체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농가월령가〉가 있다. 이 작품은 일 년 단위로 구성되어 있으며 월별로 농사일과 세시풍속 등을 서술한다. 조선 후기에 유행하던 〈월령상사가〉 역시 일 년을 단위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을 그리워하는 내용을 담았다. 모든 월령체 가사가 일 년 단위로 구성된 것은 아니다. 〈삭명가〉는 서두와 본론 부분에서 결혼 후 딸을 낳고 그 아이가 커서 혼인하는 이야기로 전개되다 딸이 병을 얻어 사망한 이후의 심정을 1월부터 10월에 걸쳐 노래한다. 이렇듯 월별의 구성을 취한 월령체 가사는 매월 구성이 일 년을 모두 노래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뉘며 내용은 주제에 맞게 서술된다.

이러한 작품들은 월령체, 달거리 등으로 불리고 있으며 연구자마다 명칭과 범주가 다르게 나타난다. 임기중은 〈농가월령가〉, 〈농가월령〉 등은 월령체계로 보아야 하고, 〈동동〉, 〈관동가〉, 〈사친가〉, 〈달거리〉 등은 달거리계로 분류해야 한다고 하였다. 달거리계의 내용 특징으로 상사의 정을 노래하고, 후렴구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월령체계 작품은 세시풍속 자체

를 노래하고 있고, 후렴구가 없다고 하여 각 특징을 구체적으로 나누었다.¹⁾ 반면, 최자운은 달거리체 노래에 액맥이 타령, 달거리, 화투뒤풀이, 범벅타령 등 민요로 확대하고 달거리는 가창유희요로 분류하여 범위를 넓혔다.²⁾ 위의 분류 기준은 작품 내용과 후렴구의 유무 등 형식적 특징 등으로 나는 것인데, 개별 작품의 복합적 의미와 향유자의 작품 해석 등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는 방식이다. 가령, <월령상사가>의 경우 상사의 정을 노래하면서 세시풍속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가하면 박준규는 좀더 넓은 범주에서 세시풍속과 관련된 가요군을 세시가요라고 지칭하고 한 해에 대한 노래, 춘하추동의 사시에 대한 노래, 일 년 중 어느 달에 관한 노래, 어느 날이나 절일에 대한 노래로 나누고 세 번째와 네 번째가 주가 된다고 하였다.³⁾ 그의 논의는 월령체, 달거리를 모두 포괄하는 상위 개념을 제시한 것이다. 송팔성은 일 년의 시간을 춘하추동으로 나누어 형상화한 것을 사시체 시가라고 분류하고 사대부들의 사회적 자아실현의 의지를 담고 있다고 하였다. 사시체에 대별되는 하층 서민 및 부녀자 계층이 일 년의 삶을 형상화한 것을 월령체 시가라고 지칭하고, 달거리, 월령체가, 세시풍요 등을 포함하고 있다.⁴⁾

본고에서 주목하는 월령체 가사 작품 <사시경계가>는 박준규가 분류한 4가지 항목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 작품은 한 해에 대한 노래에 속하면서 춘하추동의 사시를 노래하고 있기도 하고 일 년 중 어느 달(1-10월)에 관해 노래하면서 절일 등이 나타나는 복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송팔성이 말한 일 년의 삶을 형상화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사시경계

1) 임기중, 「한국시가문학에 있어서의 세시풍속의 의미」, 『한국민속학』 15(1), 한국민속학회, 1982, 186~191쪽.

2) 최자운, 「달거리체 노래 연구」, 『동양고전연구』 22, 동양고전학회, 2005, 103~124쪽.

3) 박준규, 「한국세시가요의 연구」, 전북대 박사학위논문, 1983, 15쪽.

4) 송팔성, 전수연, 「고전시가의 역사적 조명: 사대부작 월령체 전원시가 고찰, 토론, 질의」, 『고전문학연구』 10, 한국고전문학회, 1995, 145~172쪽.

가)를 박준규가 제시한 세시가요의 큰 분류와 송팔성의 월령체 시가 분류 기준에 비추어 월령체 시가 계열 작품으로 보고자 한다.

〈사시경계가〉는 작자 미상의 가사 작품으로 영천문화원에서 1988년에 편찬한 가사집에 실려있다.⁵⁾ 이 작품은 제목에서 보듯 사시 즉 사계절의 아름다운 풍경과 인생무상을 노래하고 현재를 즐겁게 살아보자는 주제가 드러난다. 이 작품은 사계절을 읊고 있다는 점에서 강호가사와 유사한 면이 있지만 유교사상을 배경으로 하는 이상적인 삶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서⁶⁾ 월령체 가사에 더 가깝다. 다양한 특징을 내포한 이 작품에 대한 연구는 찾을 수 없으므로 작품의 내용 실상을 구체적으로 밝혀보고자 한다.

2. 작품 구조와 형식적 특징

〈사시경계가〉는 사계절의 변화 속에서 계절의 아름다움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의미에 대해 노래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사계절을 다루고 있어 각 계절마다 유사한 구성을 반복하면서도 미묘한 차이를 주는 방식을 통해 통일감과 변화를 동시에 느낄 수 있다. 작품은 총 96행으로 4.4조가 주를 이루고 2.4조 1구, 3.3조 1구, 3.4조 5구, 3.6조 1구, 4.3조 5구, 3.5조 2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4.4조를 제외하고 3.4조와 4.3조가 각각 5구씩으로 많다. 이 작품은 가사의 기본 율격을 충실히 따르면서 부분적 변화를 주고 있다. 〈사시경계가〉의 구조와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 내용을 사계절

5) 영천시, 『규방가사집』, 도서출판 대일, 1988.

6) 이형대는 그의 논문에서 〈강호사시가〉의 세계는 여말선초의 혁신적 판료 사대부들이 품어왔던 요순시대에 대한 복고적 유토피아를 모델로 하는 유교적 이상국가의 비전, 곧 이데올로기적 유토피아의 표현이라고 보고 있다(이형대, 「〈강호사시가〉의 장르적 성격과 세계 형상」, 『어문논집』 36(1), 안암어문학회, 1997, 124쪽).

과 단락별로 나누어 살피기로 한다.

사계절을 구성할 때 시간의 순서대로 나열하면 봄에서 겨울이 된다. 월령체 가사 작품은 1월부터 시작해서 12월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가령, <농가월령가>의 경우 1월 입춘, 우수, 2월 경칩, 춘분, 3월 청명, 곡우/ 4월 입하, 소만, 5월 망종, 하지, 6월 소서, 대서/ 7월 입추, 처서, 8월 백로, 추분, 9월 한로, 상강/ 10월 겨울 입동, 소설, 11월 대설, 동지, 12월 소한, 대한으로 구성되어 있다. 1-3월은 봄, 4-6월은 여름, 7-9월이 가을, 10-12월이 겨울이다.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절기를 바탕으로 계절을 나누고 내용을 구성한다.

정월부터 시작하는 다른 작품들과 달리 <사시경계가>는 12월 대한(大寒)부터 시작해 입춘, 우수 등으로 연결하여 봄으로 이어지는 변화의 순간을 잘 담고 있다. 이후 여름과 가을, 겨울로 이어져 시작과 같은 겨울로 끝나는 구조를 취한다. 서두 부분을 살펴본다.

더한설한 차운바람 시조풍월 노리흐든/ 고더영웅 호걸드리 움속이서 즘을즈
고/ 입춘시절 도라오이 덧천바다 빙설들은/ 슬음업시 녹아져서 존근유슈 흐를
적의(1단락, 1-4행)

화자는 겨울에서 봄으로 변화하는 모습으로 시작한다. 대한의 추운 겨울바람을 노래하던 호걸들은 움 속에 잠을 자고 봄이 돌아오니 큰 내의 얼음들이 녹아 잔잔하게 흐르는 모습이다. 대한의 추운 겨울바람이 자신의 시절을 노래하던 모습에서 ‘노리흐든’의 ‘-던’ 어미를 활용하여 예전부터 그러했음을 나타내고, ‘흐를적의’의 진행 상태를 표현하는 ‘적에’를 사용하면서 얼음이 녹아 쉼 없이 흐르는 냇물의 모습을 보여준다. 첫 단어인 대한은 가장 춥다는 의미를 지니지만 입춘과 보름 정도 차이가 날 만큼 봄과 가까운 절기이다. 고대부터 시작한 계절 변화의 연속성과 얼어붙어 있던

겨울에서 물이 흐르는 봄으로 변화한 역동적인 상태를 표현하면서 겨울과 봄의 이미지를 모두 그리고 있다.

봄은 우수, 청명 등 절기와 관련된 시를 인용하거나 ‘만발한 살구꽃, 버들가지, 벌과 나비’ 등 완연한 봄의 풍경을 묘사한다. 이후 여름은 절기를 제시하지 않고 ‘녹엽, 녹음방초’ 등 녹음이 우거진 모습과 세시풍속을 통해 계절감을 드러낸다. 마찬가지로 가을은 ‘추절, 귀뚜라미, 국화’ 등과 세시풍속의 모습, 절일과 관련된 시를 인용하고 있다. 겨울은 ‘사락눈’을 통해 계절을 나타내고 겨울과 관련된 시를 인용한다. 봄을 제외한 다른 계절은 절기가 아니라 자연 광경을 통해 전달하고 있으며, 여름부터 달에 행해지는 세시풍속이 그려진다. 여름은 4, 5월을 서술하고 6월은 생략되어 있다. 가을은 7, 8, 9월 모두 나타나는 반면 겨울은 10월만 보인다. 11, 12월이 생략된 셈이다.⁷⁾

내용을 계절별로 나누어 계산해 보면, 봄은 35행으로 가장 길고,⁸⁾ 여름은 22행, 가을은 32행, 겨울은 7행이다. 여름은 봄, 가을보다 10행 이상 차이가 나는데 6월의 내용이 생략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가장 짧은 겨울은 11, 12월의 내용 없이 추운 겨울로 그려지고 있고, 마지막 단락과 맞물리면서 주제를 전달하는 내용과 혼용된 모습을 보인다. 사계절의 아름다운 풍경과 절기, 절일 등 세시풍속을 나열하며 계절감을 드러내던 화자가 마지막 구절에서 즐겁게 돌아보지는 주제를 던진다. 겨울 부분을 인용해 본다.

구시월 단풍입훈/ 스락눈니 녹아지고 천손만손 조피결과/ 천경만경 인죽멸
은 틀임업시 잇씨로다/ 고주사립 늘은노인 독죽한강 설이로다/ 이집저집 너른
방이 쓰쓰하기 불여노코/ 만방하기 들너안져 청춘가락 양손도라/ 주고밧고 할
울적의 는지티손 문너저도/ 못노리라 하엿드라(12단락, 89-96행)

7) 첫 행에서 대한을 언급했으니 12월이라고 한다면 11월만 생략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8) 1, 2행을 겨울에 대한 내용으로 보면 가을과 비슷한 33행이다.

단풍잎이 떨어지고 싸락눈이 내린 겨울 풍경이 그려진다. 가을에서 겨울로 이어지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제시하면서 추운 겨울에 따뜻하고 넓은 방을 가득 메운 사람들이 <양산도>를 노래하는 모습을 그린다. 차가운 겨울과 대비되는 따뜻한 방, 홀로 차가운 강가에 서 있는 노인과 방 안의 많은 사람들이 대조를 이룬다. 마지막은 열심히 돌아보자는 다짐이 드러난다. 내용에서 감탄형 종결어미를 활용하여 겨울의 풍광을 즐기는 모습과 과거를 회상하는 듯한 ‘하얏드라’의 마무리는 사계절을 모두 보낸 화자가 앞으로 다가올 봄을 어떻게 맞을지 다짐하는 듯하다.

겨울에 서서 봄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는 종결 부분은 처음 부분을 다시 상기하게 한다. 즐거운 노래를 부르던 겨울이 잠들고 새봄을 맞이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시경계가>는 사계절의 순환을 서두와 결문 부분에서 서로 연결하여 끝없이 이어지는 시간의 흐름을 설정하고 그 연속성 속에서 화자가 말하는 주제를 담고 있다.

다음으로 단락별 내용을 확인해 본다. <사시경계가>의 내용은 12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 1-4단락은 봄에 해당하는 부분이며, 5-7단락은 여름, 8-10단락은 가을, 11-12단락은 겨울로 구성된다. 단락별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단락(1-7행)은 입춘 전후의 모습을 표현한다. 2단락(7-13행)은 봄을 맞아 나물을 캐는 소녀들의 모습을 묘사한다. 3단락(14-25행)은 청명을 맞아 두목의 <청명>과 『백련초해』에 실린 봄을 연상시키는 한시를 인용하여 봄의 광경을 묘사한다. 4단락(25-35행)은 삼짇날에 옛집을 찾은 제비와 북쪽으로 이동하는 기러기 모습, 농부들의 <격양가>와 여인들의 <화전가>를 연결해 봄을 표현한다.

봄은 절기 제시-봄의 광경-시 인용-봄의 광경 순으로 전개되는데, 광경은 나물을 캐는 소녀에서 천지에 만발한 진달래꽃(두견화)으로 다시 목동의 피리소리, 벌과 나비, 새 등으로 시선이 확장된다. 화자는 봄의 광경을

미시적인 부분에서 거시적인 조망으로 공간을 확장하고, 목동의 피리소리와 풀벌레 소리 등으로 청각적인 아름다움, 벌과 나비, 새 등으로 공간의 자유로움을 묘사하여 봄을 생동감 있게 표현한다. 또한 대우법과 의인법 등의 표현법을 구사하여 봄을 묘사한다. 3단락 봄의 광경을 묘사하는 부분을 살펴본다.

천봉만학 두견화요/ 방방골골 hing화로다 츄문주가 흐쳐지요/ 목동요지 초은로다 고시이도 일너건만/ 화간점무 분분설광 유산형비 편금도/ 이도또한 명문이라 뒷동산이 살구꽃은/ 씨을짜라 만발하고 압시니의 버들가지/ 스름업시 느려진이(3단락, 16-22행)

천 개의 봉우리마다 핀 진달래와 산골짜기마다 핀 살구꽃의 광경, 뒷동산의 살구꽃과 시냇가의 버들가지 등은 꽃과 새잎이 만발한 봄의 아름다움을 대우법을 활용하여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앞부분은 수많은 봉우리와 골짜기인 장소와 만발한 꽃이 합쳐진 구조로 표현되고 있으며 이 표현으로 온 사방에 꽃이 만발한 모습을 보여준다. 화자는 대우법을 활용하여 리듬감을 살리고 있다.

5단락(36-46행)은 여름의 푸르름, 활기참과 평안한 모습을 대우법과 의인법, 고사 인용 및 시선의 변화 등을 통해 표현한다. 6단락(47-54행)은 4월 초파일(8일)을 맞아 부처님 탄생과 관련된 이야기를 서술하고, 7단락(54-57행)은 5월 천중절(5일), 단오를 맞아 그네뛰기를 하는 아이들과 부인과 자식을 잃은 비둘기를 언급한다. 비둘기는 단오와 여름이라는 계절과도 연관이 없어 내용적 이질감을 느끼게 한다. 여름은 광경-절일과 세시풍속 등을 제시하여 계절감을 표현한다. 여름 광경을 묘사하는 부분을 살펴본다.

곳진낭지 열미밋고 가지마담 녹엽이라/ 후원별당 들너본이 창송취죽 울울한디/ 기승선이 노리후이 녹음방초 승화시라/ 씨약우연 흐여이슨 연비여천 왕니

흔이/ 국티민안 하였도다 초당삼간 별당안이/ 누어인은 절문부부 연당안니 부
용화/ 염봉울을 봉오리를 소중히기 덩폴적익/ 못심야속 정학빅학 알런승명 울
고간이/ 빅주디면 김피든즘 남가일몽 깨웠도다(5단락, 38-46행)

가지에 맺힌 열매의 모습과 가지마다 푸른 잎이 달린 모습을 대우법을
활용해 묘사한 뒤 시선을 후원 별당으로 옮긴다. 여름의 광경은 봄과 달리
자연 경관에서 일상 공간으로 이동한다. 화자는 하늘을 나는 솔개에서 별
당 안에 누워있는 한가로움의 젊은 부부로 시선을 전환한다. 여름의 푸르름
이 산과 들에 가득하고 논밭의 곡식이 풍성한 모습에서 후원 별당의 푸른
소나무와 대나무로, 그 별당 안의 젊은 부부가 바라보는 연못 안의 부용화
로 시선을 좁힌다. 그 뒤 학의 울음소리를 듣고 낮잠에서 깨어난다.

‘남가일몽’에서 드러나듯 이 단락은 인생무상을 비유적으로 표현한다.
여름의 풍요로움과 낮잠의 한가로움, 부부의 화목함 등은 ‘남가일몽 깨었
도다’라는 구절에서 그 의미가 변화한다. 여름 부분은 시를 인용하지 않았
으나 관용적으로 사용하는 구절을 활용하여 표현하고 있다.

6, 7단락은 이전의 단락과 달리 절일에 해당하는 세시풍속을 나열하여
그 풍경을 보여준다. 4월에는 초파일, 7월에는 천중절의 모습을 묘사한다.
기존의 절일을 노래하는 작품들에서 초파일은 등불을 켜는 세시풍속과 연
관된 광경을 서술한다. 가령, <관등가>는 <월령상사가>와 이본 관계로 초
파일에 각종 등불을 나열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반면 <사시경계가>는
부처님의 탄생과 교리를 서술하여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말한다.
또, 5월 단오에 그네를 타는 모습은 다른 작품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지만
외로운 비둘기 이야기는 새롭다. 더구나 아내와 자식을 잃은 구슬픈 모습
의 비둘기를 ‘예절인 비둘기’라고 지칭한다. 7단락을 살펴본다.

오월이라 울울밀/ 녹음간의 추천씨는 소연들은 천중절은/ 축하하고 예절인
는 비둘기는 기집일고/ 잣식일고 엇지살고 실패운다(7단락, 54-57행)

푸르른 5월을 맞아 단오에 그네타는 젊은이들의 모습과 부인과 자식을 잃은 비둘기가 슬프게 우는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준다. 이때 부인과 자식을 잃은 비둘기는 예절있는 비둘기로 세상을 바르게 사는 새로 표현된다. 화자는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가도 부인과 자식이 죽는 참담한 일을 겪을 수 있고 예측 불가능한 비극적인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을 의인법을 활용해 표현하고 단오에 즐겁게 그네뛰는 젊은이들의 모습과 나란히 배치한다. 이러한 표현은 〈사시경계가〉에서 자주 등장하는데, 직접적인 교훈적 메시지를 전달하기보다 일상적인 상황을 대조하여 반복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무엇이 중요한 문제인지를 인식하도록 유도한다. 화자의 독특한 주제 구현 방식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가사 작품에서 등장하는 새는 빠꾸기, 두견새, 제비 등으로 작품 속에서 그리움의 대상이 되는 등 의미를 갖는데, 비둘기는 가사 작품 속에서 언급된 경우를 찾기 쉽지 않다. 그런데 이 새가 구전 민요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된다. 〈비둘기 흉내 내는 소리〉는 정해진 사실이 전승된 민요와 달리 구전되어 전해지는 가락이다. 이 구전 민요는 부르는 사람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지만 일부 구전 민요에서 〈사시경계가〉의 비둘기와 유사함을 발견하게 된다. “기집 죽고 새끼 죽고 헌누데기 몸에 걸고 비둑비둑 비둑비둑”⁹⁾의 내용은 〈사시경계가〉의 비둘기 처지와 유사하다. 전후 사실이 전해지지 않아 확인이 어렵지만 비둘기가 부인과 새끼를 모두 잃고 혼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구슬프게 운다는 설정이 〈사시경계가〉 작품 속에 그대로 드러난다는 점은 알 수 있다.

9) 안주희, 〈비둘기 흉내내는 소리〉, https://kdp.aks.ac.kr/inde/indeData?itemId=14&q=query%E2%80%A0%EB%B9%84%EB%91%98%EA%B8%B0&id=POKS.GUBI.GUBI.2_14034&pageUnit=20, 접속일자: 2025.11.14.와 의령 산비둘기흉내 소리, ‘지집죽고 자석죽고 지집죽고 자석죽고 서답빨래 누가할꼬 서답빨래 누가할꼬’ 등이 있다(경상남도·국립민속박물관·경남발전연구원, 『삶의 신명과 애환』, 『경남민요 100선』, 목민, 2013, 207쪽.).

8단락(58-64행)은 가을로 접어든 상황을 노래한다. 7월 칠석(7일)은 견우와 직녀가 상봉하는 날인데 혼자 있는 여인들과 노인들의 외로움을 서술한다. 9단락(65-73행)은 8월 보름(15일)을 맞아 귀뚜라미, 떨어지는 오동잎 등 완연한 가을의 모습과 추석을 맞은 아이들이 달맞이를 가는 장면을 표현한다. 10단락(74-76행)은 9월 9일 중앙절을 맞아 고향을 그리워하는 타지 사람들의 모습과 왕유의 시를 변형하여¹⁰⁾ 산에 오르는 풍속을 그리고 있다. 11단락(77-89행)은 10월의 모습을 이정보의 시조 ‘국화야 너는 어이’와 한무제의 시 <추풍사>, 두목의 시 <산행>을 인용하여 묘사한다.

화자는 7단락에서 보여준 주제 구현 방식을 8-11단락에서 반복하여 제시하면서 더욱 강조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8단락에서 7월은 견우와 직녀의 만남과 고아와 홀아비, 과부 등 외롭게 지내는 이들을 대비하여 그린다. 8월 역시 보름을 맞아 달구경 가는 사람들과 9월의 고향을 떠나 외로운 날을 보내는 사람을 견주어 표현하여 앞의 단락을 심화시킨다.

시조와 시를 변용한 11단락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천손만손 흥엽들은 즈비방을 즈랑하고/ 존황할손 저국화는 양춘가절 다버리고/
고목한천 춤바람이 너만홀노 피엿슨이/ 황중은일 너뿐인가 잣든홍안 도라오고/
왓든연지 멀이간니 한무지의 추풍사는/ 이시절은 을뻗도다 추풍기리 빅운미요/
란유슈이 국유방 이이 안님지라/ 소추중 부는바람 황엽홍엽 단풍입핀/
펼펼조흔 날아와서 낙엽지근 썩려진이/ 이월꽃과 방불하다 원승한손 석경스이/
빅운심쳐 유인가라 정거좌이 풍임만인/ 상엽홍어 이월화라 두견시가 실패운이/
시월달이 분명하다(11단락, 77-89행)

늦가을에 해당하는 10월은 국화와 관련된 내용으로 시작한다. 이정보의

10) 왕유의 시 <구월구일 억산동형제(九月九日 億山東兄弟)>의 구절 ‘요지형제등고처(遙知兄弟登高處) 편삽수유소일인(遍插茱萸少一人)’을 ‘오지처지 등고처의 변습수유 소일인은 유명할손 글귀로다’로 바꾸어 산에 오르는 풍속을 표현했다.

시조 ‘국화야 너는 어이 삼월동풍 다 보내고 낙목한천에 네 홀로 피었다 아마도 오상고절은 너뿐인가 하노라’를 축약하고 변용하여 ‘존황할손 저국화는 양춘가절 다버리고 고목한천 춤바람이 너만홀노 피었슨이’로 바꾸었다. 이정보 시조의 홀로 피어있는 국화의 모습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다. 이어서 한무제의 〈추풍사〉 구절 ‘추풍기혜백운비(秋風起兮白雲飛) 난유수혜국유방(蘭有秀兮菊有芳)’을 인용하여 가을 국화 모습을 그리고 단풍잎이 떨어져 흩날리는 늦가을의 전경을 표현한다. 낙엽이 떨어지는 모습이 이월꽃과 비슷하다는 구절에 이어 두목의 시 〈산행〉을 떠올리고 전문을 인용한다.¹¹⁾ 다른 달에 비해 10월 부분은 많은 시와 시조를 인용하여 계절을 표현한다. 위의 표현에서 이정보 시조 일부는 경기민요에서 보이기도 하고, 두목의 시 역시 여성 가사에서 단편으로 인용된다. 한편, 한무제의 〈추풍사〉는 인생무상의 탄식을 읊고 있어 〈사시경계가〉의 주제와 연결된다.

마지막 12단락(89-96행)은 달이 제시되지 않고 추운 겨울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단풍잎이 모두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은 모습과 홀로 있는 노인의 모습을 묘사한다. 이때 유중원의 시 〈강설〉의 전문을 인용하여¹²⁾ ‘천손만손 조미절과 천경만경 인죽멸은 틀입업시 잇씨로다 고주사림 늙은 노인 독죽한강 설이로다’로 변형하였다. 화자는 사람의 발자취도 사라진 외로운 곳에 한 노인이 강 위에서 눈을 맞으며 낚시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겨울이 되어 활기찬 모습은 사라지고 쓸쓸한 풍경만 남았는데, 따뜻한 방안에 많은 사람들과 흥겨운 〈양산도〉를 주고받으며 노래하는 모습을 묘사한다. 그리고 세상이 무너져도 이 흥취에 비할 수 없으며 끝을 맺는다. 따뜻한 방에 가득 모여있는 사람들은 홀로 추운 강가에서 낚시하는 노인과 대

11) 원상한산석경사(遠上寒山石徑斜) 백운심처유인가(白雲生處有人家) 정거좌애풍림만(停車坐愛楓林晚) 상엽홍어이월화(霜葉紅於二月花)

12) 천산조비절(千山鳥飛絕) 만경인종멸(萬徑人蹤滅) 고주사림옹(孤舟蓑笠翁) 독조한강설(獨釣寒江雪)

조를 이루며 따뜻함과 추움, 여러 명과 혼자라는 대비를 이루게 된다. 혼자 보다는 여러 명이 함께 따뜻한 겨울을 나는 즐거움을 노래하는 것이다.

<사시경계가>의 화자는 5, 7, 8, 9, 10월 등에서 대비의 방식을 통하여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6단락까지는 봄과 여름의 아름다움에 집중하다가 7단락부터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등장한다. 아내와 자식을 잃은 비둘기, 홀로 있는 여인과 아이들, 고향을 그리워하는 모습, 홀로 피어있는 국화의 절개, 차가운 겨울의 이미지와 노인 등은 외로움과 연결된다. 이들은 마지막에 언급된 따뜻한 방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과 함께 부르는 흥겨운 노랫가락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현재 가까운 이들과 함께 즐겁게 사는 것의 소중함을 인식하게 한다.

이 작품은 계절의 변화를 통해 삶의 순환을 표현하고,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한정된 삶을 살아야 하는 인생을 보여준다. 삶과 죽음이라는 애환 속에서도 세시풍속을 즐기는 일상적인 모습을 대비적으로 표현하여 현재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강조하고 있다.

<사시경계가>의 각 달의 절기와 세시풍속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음력	계절	절기	세시풍속	비고
1월	봄	입춘, 우수		
2월		경칩		
3월		청명	삼월 삼짱날	
4월	여름		초파일	
5월			천중절	
6월	(생략)	생략		
7월	가을		칠석	
8월			보름, 추석	
9월			중양절	
10월	겨울	없음		
11월	(생략)	없음		
12월		대한		

3. 〈사시경계가〉의 가사 문학사적 의미

〈사시경계가〉는 가사라는 장르에 일 년을 사계절로 나누고 다시 3월부터 10월까지 세시풍속을 즐기는 일상적인 모습을 통해 우리 삶의 소중함을 노래한다. 봄에서 겨울로 이어지는 끊임없는 시간 속에서 유한한 삶을 살면서도 혼자보다 여럿이 즐겁게 살아보자고 말한다.

〈사시경계가〉의 내용 구성은 조선 초 사시가 계열의 작품들에서 나타난다. 특정한 장소를 중심으로 사계절의 아름다운 변화와 자신의 삶에 대한 자세를 밝힌다. 이러한 내용은 조선 중기 전쟁 이후 현실성이 강화되어 나타나다가 후반으로 가면서 쇠퇴하였다. 앞서 설명한 〈농가월령가〉 역시 조선 후기 작품이다.

〈사시경계가〉의 작자는 영천 지역이라는 점 외에 추론할 만한 단서가 부족하다. 이 작품이 여성작이라고 추측하는 근거는 『규방가사집』에 수록되어 있다는 점, 민요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 한자를 우리말 구음으로 표기했다는 점 등이다. 창작시기는 두 가지 경우를 산정해 볼 수 있다. 조선 후기에 창작되어 영천 지역에 전승되다가 후대 향유자가 개작했을 경우와 근현대에 창작한 경우이다. 앞선 경우는 표기와 관련된 것으로 아래아, 두 음법칙 등 고어체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고, 민요를 수용한 것은 후대 변용 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옛말 사용을 고수하던 저자가 새롭게 창작한 경우이다. 어느 쪽이든 가사 작품 속에 민요적 내용이 삽입되었고, 옛말을 쓰고 있다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 문제는 조선 전기에 유행하였고 후기로 갈수록 쇠퇴한 내용 구성 방식을 다시 채택한 이유이다. 작자나 창작시기가 밝혀지지 않은 작품이기에 이러한 의문은 계속된다.

위의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주목한 것은 〈양산도〉이다. 〈양산도〉는 경기 통속민요로 19, 20세기에 유행하던 노래이다. 경기뿐 아니라 서도 지역 창자도 불렀을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이 노래가 경기 민요, 서도 민요로

불리기 전에 사당패에서 먼저 부르기 시작했다는 연구가 있다. 그는 사당패 출신 한인오의 소리가 미국 콜롬비아사에서 발행한 음원(1907)에 수록되어 있으며, 사당패소리 <양산도>가 향토민요로 수용된 소리라는 점을 밝혔다.¹³⁾ <양산도>는 19세기 말 20세기 초 대중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었고 음반으로 취입될 만큼 인기가 높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양산도>의 내용은 어떤가. <사시경계가>의 화자는 아무런 연관성 없이 이 노래를 함께 부르자고 제안하지 않았을 것이다. <양산도>의 내용을 보면, 첫 구절이 “에라 놓아라 아니 못 놓겠네 능지를 하여도 못놓겠네 에헤이에”¹⁴⁾로 능지라는 극형을 당하더라도 지금의 흥취를 못놓겠다는 다짐으로 시작한다. “동원도리 편시춘하니 일춘의 광음이 애석하다/ 세월아 봄철아 오고가지마라 장안의 호걸이 다 늙어간다.” 다음 구절은 흘러가는 시간에 대한 아쉬움과 인생무상의 주제 의식이 드러난다. 또 유사한 점은 사월 초파일에 등불을 켜는 모습이 등장한다는 점이다.¹⁵⁾ 각 달의 세시풍속이 제시되는 것은 아니지만 노래의 주제 의식이나 세시풍속을 노래하는 것 등에서 두 노래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다. 정리하면, <사시경계가>의 작자나 창작시기는 추정하기 어려우나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민요 등 시대에 유행하던 가락에 익숙한 가사 창작자, 향유자가 완성한 작품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의 추정을 바탕으로 <사시경계가>의 가사 문학사적 의의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시경계가>는 사시가 계열의 가사 문학 전통을 계승한 작품이다. 조선시대부터 이어진 사시가 계열과 세시풍속을 노래하는 내용 구성

13) 손인애, 「경기 통속민요 <양산도>에 대한 사적 고찰: 사당패소리 <양산도>와 음악적 관련성을 토대로」, 『한국음악연구』 48, 한국국악학회, 2010, 237~271쪽.

14) 이창배가 출판한 가요집성 민요부 경기도편에 <양산도(陽山道)>가 실려있다(이창배, 『증보 가요집성』, 청구고전성악학원, 1965, 226~227쪽.).

15) ‘사월이라 초파일에 관등하러 임고대 용등봉등 수박등 마늘등이로다’ 이 부분은 <관등가>의 사월 부분과 동일하다.

방식을 후대에 계승하고 있다. 〈사시경계가〉는 19세기 말 가사 작품에서 자주 쓰지 않던 고어체를 그대로 유지하여 가사 문학의 전통을 잇고자 하였으며, 사시가 계열의 구성 방식과 세시풍속을 읊는 방식을 활용하여 주제를 안정적이면서도 다채롭게 그려나간다. 또한 사계절 변화하는 자연에 대한 시선과 그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문학적 태도를 계승하고 있다.

〈사시경계가〉의 사계절 광경 묘사는 이전보다 구성 방식이 한층 더 정교하고 유기적으로 표현된다. 이전의 구성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면서도 사계절의 광경을 묘사하는 부분에서 정교한 시선 처리를 볼 수 있다. 가령, 봄의 광경에서 나물을 캐는 소녀에서 들뜬 꽃과 목동의 피리소리, 새, 나비 등으로 변화하는데 공간의 확장과 청각적 아름다움, 자유로움을 표현하여 생동감 있는 봄의 광경을 완성하였다. 여름의 광경은 새와 나비처럼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솔개의 모습에서 별당 안의 젊은 부부로 시선을 이동하는데 이러한 공간의 이동은 계절의 변화를 정교하게 그려내어 내용을 유기적으로 연결한다. 이후 반복된 대조의 방식을 활용하여 주제를 구현해 나간다. 결국 이 작품은 사시가 계열의 가사 문학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정교한 구성 방식을 통해 한층 더 높은 문학적 성취를 이뤄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19세기 말 20세기 초 급변하는 문화적 양상을 효과적으로 수용하여 내용적 확장을 이루었다는 점이다. 〈사시경계가〉는 민요, 잡가 등 구비 문학 및 대중적 요소를 수용하여 가사 문학의 표현 영역을 확장하였다. 5월에 등장하는 비둘기 소리와 마지막 부분의 청춘가락 〈양산도〉는 〈사시경계가〉의 주제를 잘 부연해 준다. 〈사시경계가〉는 기존의 사시가 계열의 주제에서 나아가 대중적 놀이 모습과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등 내용이 풍부해졌다. 또, 월별 세시풍속을 노래하는 방식은 〈사친가〉, 〈월령상사가〉 등 다른 작품에서도 나타나는데 이 작품들은 당대 유행하던 잡가집에 실리기도 하는 등 변주 형태가 나타난다. 〈사시경계가〉는 이러

한 요소를 활용하여 주제 및 내용의 확장을 이루었다.

4. 결론

<사시경계가>는 월령체 가사 작품으로 사계절을 노래하고 있고 일 년 중 어느 달의 세시풍속을 노래하기도 하는 등 기존의 작품 분류 항목에 모두 포함되는 입체적인 내용의 작품이다. 이 작품에 대한 기존 논의를 찾기 어려워 작품의 내용적 특징과 가사 문학적 의미를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하였다.

<사시경계가>는 총 96행으로 44조가 기본을 이룬 작품이다. 일 년 사계절을 모두 노래하고 있는데 봄부터 시작하는 기존 작품들과 달리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이루어진다. 계절의 순환적 질서를 작품 속에서 그대로 드러내고 있으며 각 계절의 이름다움을 잘 묘사하고 있다. 계절별로 내용을 분류하면 봄이 35행, 가을이 32행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여름이 22행, 겨울이 7행으로 가장 짧다. 내용을 단락별로 나누면 총 12단락으로 나뉜다. 1-4단락은 봄, 5-7단락은 여름, 8-10단락은 가을, 11-12단락은 겨울로 구성된다. 작품은 계절의 이름다움을 묘사하고 세시풍속을 노래하며 그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계절의 이름다움은 봄과 여름의 광경은 미시적인 관점에서 거시적 관점으로 다시 미시적 관점으로 변화하며 다채로운 표현 방식을 보여준다. 이후 세시풍속을 노래하는 단락은 6단락부터 10단락까지이다. 일상적인 세시풍속을 보내는 이들과 대조하여 혼자 된 이들의 외로움을 반복적으로 노래한다. 마지막에는 함께 모여 흥겨운 민요를 부르는 모습을 제시하여 주제를 완성한다. 이렇듯 조직적인 내용 구성과 반복적인 주제 표현 기법으로 현재의 삶에 집중하여 즐겁게 살아보자는 의미를 드러낸다.

이 작품의 문학사적 의미는 두 가지로 살펴보았다. 〈사시경계가〉의 저자와 창작연도를 구체적으로 추정하기에 자료의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작품 속 내용을 바탕으로 영천 지역의 전통을 중요시하는 여성이 19세기 말 혹은 20세기 초에 작품을 창작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사시경계가〉의 사계절 구성 방식은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온 사시가 계열의 가사 문학을 후대에 계승하고 있으며, 19세기 말 20세기 초 변화하는 문화적 양상을 수용하여 내용적 확장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참고문헌

- 영천시, 『규방가사집』, 도서출판 대일, 1988.
- 경상남도·국립민속박물관·경남발전연구원, 『삶의 신명과 애환, 경남민요 100선』, 목민, 2013.
- 안주희, <비둘기 흉내내는 소리>, https://kdp.aks.ac.kr/inde/indeData?itemId=14&q=query%E2%80%A0%EB%B9%84%EB%91%98%EA%B8%B0&id=POKS.GUBL.GUBL2_14034&pageUnit=20, 접속일자: 2025.11.14.
- 고영근, 『한국어의 시제 서법 동작상』, 도서출판 태학사, 2004.
- 이창배, 『중보 가요집성』, 청구고전성악학원, 1965.
- 장사훈, 『한국음악사』, 세광음악출판사, 1986.
- 박준규, 「한국세시가요의 연구」, 전북대 박사학위논문, 1983.
- 손인애, 「경기 통속민요 <양산도>에 대한 사적 고찰: 사당패소리 <양산도>와 음악적 관련성을 토대로」, 『한국음악연구』 48, 한국국악학회, 2010, 237~271쪽.
- 송미지·고정희, 「크로노토프를 활용한 <강호사시가>와 <전원사시가>의 비교」, 『고전문학과 교육』 49,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22, 183~223쪽.
- 송팔성·전수연, 「고전시가의 역사적 조명: 사대부작 월령체 전원시가 고찰, 토론, 질의」, 『고전문학연구』 10, 한국고전문학회, 1995, 145~172쪽.
- 이형대, 「<강호사시가>의 장르적 성격과 세계 형상」, 『어문논집』 36(1), 안암어문학회, 1997, 111~126쪽.
- 임기중, 「한국시가문학에 있어서의 세시풍속의 의미」, 『한국민속학』 15(1), 한국민속학회, 1982, 186~191쪽.
- 양지인, 「가창가사와 가사의 범주」, 『한국음악연구』 75, 한국국악학회, 2024, 53~72쪽.
- 양희철, 「<전원사시가>의 구조 연구」, 『어문연구』 77, 어문연구학회, 2013, 219~251쪽.
- 최자운, 「달거리체 노래 연구」, 『동양고전연구』 22, 동양고전학회, 2005, 103~124쪽.

ABSTRACT

A Study of the Structure and Formal Characteristics of Sasikyeonggi-ga as a Wollyeongche Gasa

Lee, Sang-suk

This paper investigates the thematic characteristics and literary significance of Sasikyeonggi-ga, which is a gasa work in the wollyeongche style. As a wollyeongche gasa, Sasikyeonggi-ga not only celebrates the four seasons but also depicts the seasonal customs of specific months throughout the year. In this respect, the work embraces all conventional classificatory categories applied to gasa literature, demonstrating multidimensional content.

Sasikyeonggi-ga consists of a total of 96 lines, primarily composed in the 4·4 rhythmic pattern. While the work encompasses all four seasons of the year, it differs from conventional compositions that begin with spring by adopting a cyclical structure that starts with winter, proceeds through spring, summer, and autumn, and concludes again with winter. The text is divided into twelve sections: sections 1-4 depict spring, sections 5-7 summer, sections 8-10 autumn, and sections 11-12 winter.

It portrays the beauty of each season, celebrates seasonal customs, and presents scenes of daily life within them. In describing seasonal beauty, the portrayals of spring and summer employ vivid perspectives, shifting from the micro to the macro and then returning to the micro. In particular, in the sections depicting seasonal customs such as the seventh night of July and the full moon of August (sections 6-10), the narrator repeatedly contrasts those who enjoy everyday pleasures with those who remain alone. The last section presents a scene of people gathering in a warm room and joyfully singing the folk song Yangsando, thereby completing the theme of embracing and enjoying life in the present. Through its systematic organization and repeated thematic contrasts, the work emphasizes the beauty and value of the present

moment amid the joys and sorrows of life and death.

The authorship and date of composition of Sasikyeonggi-ga are not easy to trace due to a lack of extant sources. However, based on the content of the work and the period during which Yangsando was popular, this study estimates that the text was composed in the late nineteenth or early twentieth century by a woman who valued the traditions of the Yeongcheon region. In this regard, the literary significance of Sasikyeonggi-ga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inherits and transmits the gasa literary tradition of the Sasiga lineage that had continued since the Joseon Dynasty. Second, it achieves thematic expansion by accommodating the cultural changes of the late nineteenth and early twentieth centuries.

Key Words Sasikyeonggi-ga, wollyeongche gasa, Sasiga-lineage gasa, seasonal customs, festival days, Yeongcheon

논문투고일: 2025.12.19. 심사완료일: 2026.02.04. 게재확정일: 2026.02.05.
--